

인천주보

교구장 사목교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루카 22,19)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이 옥좌에 앉은 성모자〉, 13세기 경, 산 레올리노 교구교회, 판자노 인 키안티, 피렌체

제1독서 신명 30,1–5

화답송 예레 31,10.11–12ㄱㄴ.13ㄷㄹ–14(◎ 10ㄷ 참조)

- ◎ 주님, 흘어진 당신 백성을 모으소서.
- 민족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면 바닷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흘으신 분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양 떼를 돌보듯 지켜 주시리라.” ◎
- 정녕 주님은 야곱을 구하셨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네.
그들은 환호하며 시온 산에 올라와,
주님의 선물을 받고 웃으리라. ◎
- 나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위로하리라.
그들의 근심을 거두고 즐거움을 주리라.
사제들에게는 기름진 것을 배불리 먹이고,
내 백성을 내 선물로 가득 채워 주리라. ◎

제2독서 에페 4,29–5,2

복음한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의 교회는 하나의 빛,
온 세상에 퍼져 있어도 갈라지지 않으리라. ◎

복 음 마태 18,19ㄴ–22

영성체송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이니,
무엇보다 사랑을 입어라.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인천주보를 볼 수 있습니다.



용서와 일치



소설가 공지영 씨의 작품이자, 2006년에 개봉된 이나영, 강동원 주연의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저는 책보다 영화를 먼저 봐서 그런지, 영화의 장면들이 먼저 떠오르네요. 아무튼 이 작품은 단순히 두 남녀 간의 새콤달콤한 사랑이라는, 단물 다 빠진 풍선껌과도 같은 주제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사이의 송고하고도 눈부신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 중에 작품 속에서 남자 주인공 윤수의 일기인 블루노트 18에 쓰인 글을 소개할게요.

‘사랑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고, 용서 받아본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 우리가 만나던 그 시간, 우리가 마셨던 인스턴트커피, 우리가 나누었던 작은 뺑. 일주일에 그 몇 시간으로 인해 저는 어떤 모욕도 참아낼 수 있었고,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었으며,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고, 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신께 뉘우치며 참회했다고 말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게 되는 소중한 진리를 다시금 깨우치게 합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행복과 위로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행복을 시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하고 아껴주기에도 너무나 시간이 모자라면서, 왜 그리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지 못해 안달인 세상인 걸까요.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나에게 손 내밀어줄, 그리고 내가 손 내밀어 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나 있다는 것을 모르고서 말입니다. 사람들과의 부대낌 안에서 서로를 향한 관심어린 눈짓만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또는 그 눈짓을 보낼 수 있다면, 세상은 언제라도 지금보다 살만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질문.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용서는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용기와 진실함, 그리고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하느님께서는 용서를 실천하는 이에게 상상하지 못 할 커다란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사랑이신 그분께서는 그를 끊임없이 당신의 품 안으로 초대하셔서, 우리의 잘못으로 일으켜진 하느님과 나 사이의 분열을 일치에로 묶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용서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가장 아름다운 현존 방식입니다. 용서 안에는 하느님께서 현존해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곧, 용서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한 당신의 그 뜨거운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이따금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저 멀리서, 혹 어떤 대단한 것에서 찾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나라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맺어진 일치의 관계 안에서, 서로 용서를 주고 받는 상황 안에서, 그리하여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는 관계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새하얀 미소를 짓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70년 넘게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분단은 한 민족, 한 형제인 우리가 서로에게 더더욱 깊은 상처와 무관심을 주고받게 하였지요. 분열을 일치로 바꾸는 힘이 용서에 있다면, 남북 분단을 극복해 나갈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끊임없는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사랑으로 함께 모여 주님께 감사드릴 그 날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화와 일치가 사랑으로 묶인 이 땅, 그 자리에 분명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인천주교

당신은 성찬의 식탁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미사, 좋아하십니까? 미사에 참여하시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혹시 미사를 좋아하지도, 참여하는 것이 즐겁지도 않은데 의무감 때문에 미사에 참여하십니까? 혹은 미사 안에서 하는 봉사 때문에 마지못해 참여하십니까?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찬의 식탁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찬의 식탁으로 늘 초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몸과 피인 성체와 성혈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당신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성찬의 식탁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옆자리입니까?

아니면 마주보는 자리?

그마저도 아니라면 식탁의 맨 구석에?

혹시 식탁에 앉아있지도 않은 것은 아니겠지요?

설마, 식탁이 차려진 집의 문 밖에 서 계시지는 않겠지요.

미사에 초대받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모두 미사의 주인공입니다. 각자가 예수님께 초대받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 초대에 응할지 말지는 각자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초대로 이루어진 성찬의 식탁에서 어디에 앉을 것인지도,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문제입니다.

어느 자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옆자리입니까? 혹은 다른 자리입니까? 설마 문 밖을 선택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우리가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즉, 우리는 늘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만 내가 우리와 함께 앉아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 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당신을 위해 성찬의 식탁의 바로 옆자리를 비워두고 계십니다. 함께 앉으십시오.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느끼십시오. 그것이 미사의 전부입니다. 그럼으로써 나에게는 행복한 미사가 될 것입니다. 인천주교

서철원 다니엘 신부 | 청소년사목국 부국장 (청년부)

[교구민 기고문]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나는 해마다 6월 25일이 다가오면 웬지 마음이 짠해진다. 언젠가 구월 1동 성당에서 들었던 김병상 몬시뇰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김 몬시뇰님께서 소신학교를 다니실 때 전쟁으로 인해 한강 다리가 폭파되었다고 한다. 그 때 교장 신부님께서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탁자위에 쌀 한 되와 소금 한 주먹씩을 주시면서 피난을 가다가 배고풀 때 생쌀과 소금을 조금씩 먹으면서 남쪽으로 가라고 하셨다고 한다. 몬시뇰님의 고향이 공주라 걸어가다가 성당이 보이면 들어가서 인사를 드리시면서 피난을 가셨다고 한다. 나는 그 당시 5살이었는데 부산으로 피난 가서 새우젓갈 항아리 속에 숨겨 놓은 생쌀을 먹으려다가 거꾸로 박힌 기억이 있다. 죽기 직전에 어른들이 꺼내 살아났다.

다시 몬시뇰님 이야기로 돌아오면, 그 당시 중학생도 학도병으로 보내졌다고 했다. 소신학교 학생이라 학도병으로 끌려갈 위험이 있어 직물 공장 창고에 모여 밥 두덩어리를 주면서 한 덩어리는 지금, 또 한 덩어리는 나중을 위해 잘 보관하라며 배급을 받으셨다고 했다. 그리고 미군 지프차와 배를 타고 제주도로 보내졌으며 한국순교복자수녀원에서 피난생활을 하였다고 하셨다. 피난과 고생으로 인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도중에 심한 중병으로 뒤늦게 사제 서품을 받으셨다고 했다.

하느님께서는 전쟁 중에도 1명의 사제를 양성하시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이끄셨음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다. 한국을 사랑하셔서 전쟁이라는 죽음의 시간 속에서 생명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사제의 길로 이끄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전쟁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들 갔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헤어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가? 오래전부터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23년전부터 같은 뜻을 가진 7명이 모여 기도를 하게 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죽어간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우리의 기도로 하느님 품안에서 우리와 우리의 지향인 통일을 위해 기도를 해 준다고 생각하니 하느님께서 그 기도를 꼭 이루어주시리라는 믿음이 굳세어진다.

중국을 통해 올라갔던 백두산꼭대기에서 천지를 바라보며 나는 “하느님 아버지, 어서 빨리 통일이 되어 북녘 땅을 밟고 천지를 올라올 수 있게 해주시고,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선교할 수 있는 통일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아멘.”이라고 간절한 기도를 바쳤다. 분단이라는 이 장벽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느님을 모르는 그들은 무기와 미사일로 싸움을 걸어오지만 하느님을 굳게 믿고 있는 우리는 성모님과 성인 성녀들과 특별히 한국의 성인들을 불러 기도 할 때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마태 7,7) 하신 말씀을 통해 통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통일, 북한 선교, 이 둘을 떼어 놓을 수 없어 오래전부터 해온 통일을 위한 기도를 많은 신자들도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속죄의 마음으로 항구히 기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꼭 들어 주실 것이다.

이천호

강기순 루시아 | 답동 주교좌성당

